

大學과 엘리트교육의 傳統

李 仁 浩

(서울大 西洋史學科)

I

‘민중’이라는 낱말이 가지는 정치적 위력 앞에서 엘리트란 자랑스럽기보다는 차라리 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지칭이 되어 가고 大學平準化 정책이 이론적으로 주장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풍토 속에서 엘리트교육론을 폄다는 것은 정치적 감각의 결여에서 오는 만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트교육이 더 중요하냐 大衆教育이 더 중요하냐 하는 논의는 民主社會에서 自由가 더 중요하냐 平等이 더 중요하냐 하는 논의나 마찬가지로 양자의 필요불가결성을 다 같이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지 그 중 하나를 배제하고 다른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이 이해된다면 엘리트교육론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논지는 바로 참다운 엘리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중교육도 내용적 결실을 거둘 수 없으며, 참다운 엘리트육성에서의 실패야말로 우리의 교육이 왜 지금과 같은 난국에 처하게 되었으며 경제의 성장과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왜 파국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I

가장 초보적인 차원에서는 엘리트교육 대 대중교육의 문제가 教育에서의 質과 量의 문제라고 바꾸어 이야기될 수 있다. 곧 教育에 투자될 수 있는 社會的 資源이 한정되어 있을 때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教育의 혜택을 분배하려면 教育인구 개인당의 教育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教育의 質이라는 면에서의 양보가 불가피하며 반면에 수준 높

은 엘리트교육에 치중하려던 많은 사람들은 教育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質이 감퇴된다 하더라도 教育의 기회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中高等學校의 平準化 정책을 실시하며 課外를 금지시켜 온 근년의 우리의 文教政策의 추세였으며 下級學校에 적용되었던 이 平準化 시책은 地方大學의 적극적 육성이나 卒業定員制 실시, 大學新入生 선발에서의 大學의 自律權 박탈 등을 통해 大學教育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온 셈이다. 歷史가 그리 길지 않은 서울과 地方의 여러 대학들까지도 學校間의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教育이나 研究 여건이 갖추어졌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分野마다 각기 碩·博·士 과정을 설치하고 되도록이면 자기네 졸업생이나 연교자들로 教授人員까지 충당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大學教育이 大衆化 및 平準化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이다.

大學教育의 대중화 및 평준화 경향이 빚어낸 결과는 단순히 質的 低下 또는 수준 향상의 지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현상은 대학교육 기회의 급격한 확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무지와 무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느냐가 뚜렷하지 않게 된 것이다.

III

政治的 또는 經濟的 평등의 달성이라는 견지에서만 볼 때에도 下向의 平準化 경향도 불사하고 大學의 문을 무턱대고 넓힌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는 大學을 卒業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가 될 만큼 큰 수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非名門大 또는 地方大 卒業生들에 대해 고용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보았자 고용주측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만을 知的 秀越性 등 자기들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하여 기용할 뿐 사회 저변으로부터 솟아오르는 平等主義的 욕구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 大學 卒業生은 남아돌고 오히려 中卒, 高卒 人力은 不足될 전망이 보인다 함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同窓 관계나 地緣 등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메타적 自救策이 취업난 해소에서 약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知的 秀越性이라는 기준보다도 同窓 관계 등 다른 연줄을 근거로 教授人員을 충당하는 大學들은 결국 公開市場에서의 경쟁력을 거둘 수 없게 되며 자연도태를 모면할 수 없게 된다. 質的 低下까지도 감수하는 教育機會의 평준화를 통해 사회의 평준화에 기여한다는 발상은 하급학교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大學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함은 곧 드러나기 마련이다. 高級人力의 수급 과정에서는 分配가 아니라 生産의 우선적인 尺度로 적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IV

大學의 기본 기능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발탁과 육성에 있지 교육의 기회를 포함한 혜택의 分配에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로 논의는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大學이 正義나 平等이니 하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대학이 그러한 가치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을 배출함으로써이지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교육적 생산성보다도 사회적 평형이라는 원리에 따라 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는 뜻이

다.

대학이 아니면 다른 어느 기관도 해낼 수 없는 일은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미래의 지도계층의 배양이다.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민주사회일수록 知的으로 卓越하고 道義的으로 책임감이 강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의 知的, 道義的 秀越性이 만인 앞에서 공인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도 수월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연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엘리트층을 발탁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타당성은 바로 이러한 탁월한 지도력의 필요성에서 찾아지는 것이며 엘리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그러한 엘리트교육에 투자되는 사회적 자원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V

대학이 배출해야 할 훌륭한 지도자란 정치적 지도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다 말하는 것이다. 정치인이건 교육자이건 의사이건 상관없이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서 공동으로 요청되는 것은 자기 자기 분야에서 他的 추종을 불허하는 知的 수월성을 드러낼뿐더러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일이 인류 전체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국가나 민족, 지역, 또는 가족공동체에게 왜 필요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하며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기관들은 엘리트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전문훈련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나 지시에 따라 전문적 기능만을 발휘하고 그 대가로 얻는 혜택만을 향유하던 데이지 자기가 수행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책임질 의무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지적 노동자일 뿐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엘리트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소유는 富의 획득을 쉽게 만들고 富의 축적은 사회의 전전한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생성시키나 富의 소유나 향유 그 자체가 엘리트의 신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의 존재란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없음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知的 능력의 배양이야말로 엘리트교육의 핵심이요 그러한 능력의 사회적 활용만이 엘리트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이다.

VI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탁월한 知的 능력, 또는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의 배양은 엘리트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삶 전반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노력과 정성이 경주된다 해도 피교육자 누구에게서나 얻어질 수 있는 성과는 아니다. 그러한 교육의 성취 효과란 어느 사회에서나 우선은 소수의 뛰어난 인물들에게서나 겨우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엘리트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엘리트교육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대학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학교들은 타고난 지능, 어릴 적부터 받아 온 품성교육 등으로 보아 미래에 지도자가 될 자질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단계적으로 선발하여 가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가동시키는 지식과 품성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다.

大學 이전의 교육이 전혀 잘못되었을 경우 대학에서 그것을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별해 내어 그들에게 올바르게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학생의 선발 과정에서 대학은 학생의 知的 잠재력 못지 않게 인간적인 품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며 현행의 획일화된 입시제도하에서 그것이 불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서양의 오래된 몇몇 명문 사립대들이 사회가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국가적 지도자의 대다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에 대해 누구도 '평등'이나 '평형'이니 하는 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오는 일이 없는 것은 그러한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善 없는 知識은 백해무익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깔고 엘리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 이라든가 하는 말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VII

엘리트교육이란 바로 그 定義 자체에서부터 道德的 責任感을 수반하는 탁월한 知的 能力的 기발이어야 하므로, 그러한 교육이 성공을 거두려면 교육환경 전체가 그것에 맞게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생활과 실천을 수반하는 교육이며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들 전체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상황에서라도 지식의 흡수는 가능하나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현실 문제에 부딪쳐서 그 해

결에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훈련을 쌓을 기회는 얻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호간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교수들이 가까이 참여하는 기숙사 속에서의 공동생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知的 잠재력이나 人間的 성숙도에서는 미등하나 사회환경이 서로 다른 데서 온 학생들이 개별적인 환경의 차이를 잊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友情과 동지 관계가 수립될 수 있으며 서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道德的으로 知的으로 공동기반을 가진 진정한 엘리트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사회도 그들을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VIII

이러한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구비하려면 지금 대학에서 학생 개인당 투자되는 교육비에 비해 엄청나게 큰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물론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가 일시에 모든 대학에 대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수밖에 없다.

대학의 기능은 물론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가 교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학들이 보이는 공통된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보다도 연구가 대학의 중심 기능이라 함을 생각한다면 대학은 그 성격 자체부터가 엘리트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함이 더욱 자명해진다. 곧 피동적 위치에서 지식을 전달받는 행위는 평균적인 지능만을 가진 사람이면 다 해낼 수 있지만 연구란 탁월한 천부적 재질을 갖춘 위에 진리를 탐구하는 습성을 장기간의 엄격한 훈련을 거쳐 길러 온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연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가능케 하는 여건 가운데는 우선 연구에 필요한 시간, 문헌이나 실험기재,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보조 인원이 절대불가결의 요소이지만 같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분야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수준에서 비슷한 강도의 知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받는 자극과 정보 교환이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 그 때문에 대학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學科 이외에도 각종의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하고 국내외 학자들의 교류를 위한 학술회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여건들이 구비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학교육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미

국에서도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자의 46%는 보스턴에서 워싱턴 사이에 있는 북동부의 몇몇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중 36%가 또한 버클리화스텐포드에서 배출되었음을 보면 연구의 생산성은 엘리트화를 떠나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임이 드러난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이란 한두 개의 대학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참다운 대학으로 육성시켜 대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대학이 모름지기 어떤 기관이어야 하며 기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추상적 평등론의 기치 아래 모든 대학들이 凡才나 무식군의 온상이 되도록 방치하느냐 하는 데 있다.

IX

대학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중심목표는 무엇보다도 수월한 知的 능력의 배양이다. 그러나 知的 수월성이란 전문지식의 축적이나 논리적 사고 능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곧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적 인물은 자기가 직접 배워서 알고 있는 분야 밖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해도 그 해결을 향한 접근 방식은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가지는 인간적,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학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감각의 결여나 문제 해결을 위한 知的 능력, 다시 말하면 思考의 철저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이 敎養教育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양교육은 그 본래의 취지가 망각된 상태에서 형식주의로만 혼란기 때문에 교양교육 공통과목이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관심에 부응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성적 사고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대신 진부한 치닥거리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그러나 예술이나 문학에 대한 기본적 조예, 역사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회적 사유의 능력, 수학적 사고 능력과 자연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 외국어나 외국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은 전문지식의 함양 이전에 대학인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될 교양의 공통기반이며 대학에서 그러한 교양의 공통기반이 이루어지고 유지될 때 사회 전체에도 비로소 理性과

역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대학들에서는 대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 지도력의 발휘라는 면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X

한 나라나 사회의 정치나 문화의 수준은 곧 그 국민이나 민족의 문화와 교육의 수준의 반영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화적, 교육적 저력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 大學만이 번성할 수는 없는 일이고 大衆 전체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곳에서 知的 엘리트만이 배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知的, 道義의 기강을 세워 나가는 일은 대학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 대학 가운데에서도 가장 탁월한 능력

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대학들이 사회와 인간 능력의 개발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가며 이 일에 앞장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의 구실을 하여 자타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들을 정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배출해 낼 때 이 땅에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理想이 지배하는 민주 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의 발탁과 배양이 生産과 分配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知的 수월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엘리트교육에 이 社會의 未來를 걸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특혜받은 자기의 개인적 처지를 뛰어넘어 大衆教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質的 수준의 양보 없이 敎育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교육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을 강구해 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기 위해 대학의 엘리트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